

##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민족들의 구비문학 기념물

- Памятники фольклор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90~2011 гг.-

강정원(공동저자)\* · 사르다나 루미안체바(공동저자)\*\*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민족들의 구비문학 기념물』 총서는 시베리아와 극동<sup>1)</sup> 지역 민족들의 구비문학을 총 60권의 책으로 출판하려는 장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 사업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분원 언어학 연구소가(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СО РАН) 실시하고 있으며 본 기관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서 언어학과 구비문학, 문학 연구 영역의 핵심적인 연구 활동을 이끌어가는 학술기관이다. 과거에 역사학·언어학·철학 합동연구소에 소속되었던 시베리아의 민속(구비문학) 연구자들은 『소련 민족지학-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었던 민족지학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논문이나 수집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민속학자들이 꼼꼼하게 수집해 온 여러 설화들이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기만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소수민족들의 살아있는 구비문학을 수집하고 기록하지는 의도에서 1981년에 시베리아 분원 언어학 연구소는 총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일반적으로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시베리아로 칭하는데, 러시아(구소련)에서 태평양에 면한 지역을 극동 지역으로 시베리아에서 분리시켰다.

총서 발간의 책임은 언어학 박사 알렉산드르 소크토예프(Соктоев А.Б.)가 맡았다. 그의 지도아래 주요 편집위원이 결정되었으며 학술적인 구상과 방법론을 입안하고 앞으로 나올 총서들의 윤곽을 잡았다. 처음에는 1년에 6권씩 책을 내고 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자 계획보다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서 에벤크의 영웅서사시를 소개하는 첫 책은 1990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1983년에 총서의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적인 편성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당시 역사학·언어학·철학 합동연구소 아래 시베리아 민족 구비문학부가(Сектор фольклор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설립되었다. 언어학 연구소에 소속된 구비문학부는 요즈음에도 총서 출판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구비문학부의 주된 과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구비문학을 기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일이다. 그 목적으로 1984년부터 총 57번의 현지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많은 관련 박물관과 연구소, 아카이브와 협조가 이루어졌다. 1991년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현지로 나가는 일이 어려워진 관계로 9년 동안(1995년에 한티만시자치구 조사가 중간에 한 번 이루어졌다) 중단되었다가 2000년부터 다시 재개할 수가 있었다. 구비문학부의 지도 아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총 33권의 책이 나온 상태이다:

에벤크의 영웅서사시: 용감한 소다니 용사. 자수 장식의 옷을 입은 전능한 데벨첸 용사(Эвенкийские героические сказания: Храбрый Содани-богатырь. Всесильный богатырь Дэвэлчэн в расшитой -разукрашенной одежде) - 1990

부랴트의 영웅서사시: 젊은 알람지 메르겐 그리고 그의 누이 아구이 고흐(Бурят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Аламжи Мэргэн молодой и его сестрица Агуй Гохон) - 1991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구비서사시(Русская эпическая поэз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1991

야쿠트의 영웅서사시: 크로스 데빌리에(Якут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Кы

ыс Дэбиллий э) - 1993

부랴트의 신이담(Бурятские волшебные сказки) - 1993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민담: 신이담과 동물담(Русские сказк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лшебные и о животных) - 1993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민담: 전설 및 일상생활담(Русские сказк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Легендарные и бытовые) - 1993

투바의 민담(Тувин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 1994

사하(야쿠트)의 전설과 신화(Предания, легенды и мифы саха (якутов)) - 1995

야쿠트의 영웅서사시: 위대한 예르 소고토흐(Якут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Могучий Эр Соготох) - 1996

나나이 구비문학: 닌그만, 시오호르, 텔룬구(Нанайский фольклор: Нингман, сиюхор, тэлунгу) - 1996

투바의 영웅서사시: 후난-카라, 보크투그-기리쉬, 보라-시엘레이(Тувинские героические сказания: Хунан-Кара, Боктуг-Кириш, Бора-Шэлей) - 1997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세시풍속 관련 구비문학과 민요, 주문(Русский календарно-обрядовый фольклор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есни, Заговоры) - 1997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민요(Русские лирические песн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1997

알타이 영웅서사시: 오치-발라, 칸-알튼(Алтайские героические сказания. Очи-Бала, Кан-Алтын) - 1997

하카스의 영웅서사시: 아이-후우친(Хака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Ай - Хуучин) - 1997

쇼르의 영웅서사시: 칸 페르젠, 알튼 스크크(Шорские героические сказания: Кан Перген, Алтын Сърък) - 1998

우데게 구비문학: 니만쿠, 텔룬구, 예헤(Фольклор удэгейцев: Ниманку,

- тэлунгу, ехэ) - 1998
- 돌간의 구비문학(Фольклор долган ) - 2000
- 부랴트의 민담: 동물담. 일상생활담(Бурят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О животных. Бытовые ) - 2000
- 알타이의 민담(Алтай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 2002
-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인들의 일생의례 구비문학. 혼례의식요와 장례의식요(Русский семейно-обрядовый фольклор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вадебная поэзия. Похоронная причетъ) - 2002
- 네네츠의 구비문학(Фольклор ненцев) - 2001
- 사하(야쿠트)의 의식요(Обрядовая поэзия саха (якутов)) - 2003
- 유카기르의 구비문학(Фольклор юкагиров) - 2005
- 만시의 신화와 전설, 민담(Мифы, сказки, предания манси (вогулов)) - 2005
- 야쿠트의 민담(Якут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 2008
- 투바의 신화와 전설(Мифы, легенды, предания тувинцев) - 2010
- 쇼르의 구비문학(Фольклор шорцев) - 2010
- 알타이의 구비문학(Несказочная проза алтайцев ) - 2011
- 시베리아 및 극동 벨라루스인의 구비문학. 1부: 가정의례요와 장례의식요(Фольклор белорус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 1: Семейно-обрядовые песни и причитания ) - 2011
- 에벤크의 의식요와 민요(Обрядовая поэзия и песни эвенков) - 2014
- 하카스의 민담(Хака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 2014

즉 민족별로 정리해 보면 러시아(6), 벨라루시, 야쿠트(5), 투바(3), 알타이(3), 하카스(2), 쇼르(2), 돌간, 부랴트(3), 에벤크(2), 우데게, 나나이, 만시, 네네츠, 유카기르 구비문학이 소개되었다. 구비문학 자료가 많은 경우에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사하-야쿠트 민족의 구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된 편이다. 장르로 보자면 영웅

서사시(9), 민담(8), 신화 및 전설(4), 의례 및 의식과 관련된 구비문학(5), 민요(1) 그리고 구비문학 전반이 정리된 책 6권으로, 영웅서사시에 약간은 치우치기는 하였지만 구비문학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총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을 대부분 아우르는 장대한 시도라는 점, 영웅서사시부터 오늘 날의 의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설화와 민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큰 가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예: 돌간, 토팔라르, 우데게, 유카기르 등).

모든 책을 다 검토하기는 어렵고, 『사하(야쿠트)의 전설과 신화』를 사례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권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큰 범위로 본다면 대동소이하다. 사하의 전설과 신화에 관한 책의 주필은 에멜리아노프(Н. В. Емельянов)가 맡았다. 번역문의 편집은 로즈노바(С.П. Рожнова)가 수행하였으며 서문과 텍스트의 정리 및 번역, 각종 해설과 목록 작성을 알렉세예프, 에멜리아노프, 페트로프(Н. А. Алексеев, Н. В. Емельянов, В. Т. Петров)가 작성하였다. 이 책에는 56편의 신화와 전설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 46편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텍스트는 장르와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 야쿠트 민족의 선조인 오모고이와 엘레이, 각 씨족의 조상들, 그리고 ‘부자들을 약탈하여 가난한 이를 돕는’ 만차르 영웅에 대한 전설적인 영웅서사시가 소개되어 있다. 신화를 다루는 두 번째 부는 동물신화와 정령신화, 사면들에 대한 신화를 포함한다.

『구비문학 기념물』 총서의 특징상, 이 총서가 무엇보다 먼저 기록과 보존을 지향하는 학술서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구술을 맥락과 상황을 살려서 싣고 있다는 점에서, 가공되지 않은 구비전승을 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 권마다 그렇듯이 원 언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제시된다. 책을 열면 왼쪽에 원문, 오른쪽에 번역문이 동시에 나오는 형식을 유지한다. 번역 작업이 정밀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민족 언어와 러시아어로 된 텍스트가 편의상 각 절에 숫자가 매긴 상태로 병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줄이 서로 잘

맞게 놓여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러시아어로 된 번역문에도 야쿠트어로 된 텍스트의 특징을 적절하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순조로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시 꺾쇠괄호 안에 추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맥락에 맞는 해석을 완성하였다. 시적인 표현과 생활문화에 특징적인 현상은 책의 뒷부분에 있는 해설과 각종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해설 부분에서 각 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 이야기를 누가 몇 년도에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어서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제보자의 나이, 출신지, 교육 수준에 관한 정보가 있다. 더불어 해설은 본문에 나오는 구비전승물과 유사한 변이형 여러 개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총서는 말 그대로 '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집된 많은 자료 중에 가장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제공하고 있다. 선발 기준은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이 된다. 아울러 기존의 공개 여부도 중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편집국의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야쿠트인들의 구비문학 일반과 구비문학 수집·연구과정을 분석한 논문, 본문과 해설, 수집과 정리, 편집관련 인물, 제보자 목록이 제시된다. 그리고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 목록, 지명 목록, 번역되지 않은 단어 사전, 참고문헌과 영어와 러시아어 초록이 덧붙여있다.

『구비문학 기념물』 총서의 두드러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각 책에 동반된 미디어자료이다. 초반에는 그것이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레코드판이 제공되었다(『사하(야쿠트)의 전설과 신화』 책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며 신화와 전설 여러 개가 녹음되어 있다). 2000년에 출판된 제20권 『부랴트의 민담』부터 디지털 매체인 CD 디스크가 부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구비문학 중에 노래를 다루는 경우에는 각 노래에 대한 음악학적인 해설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CD 내용에 대한 자세한 메타데이터가 제공된다. 구비문학부가 직접 진행한 현지조사 중에 찍은 사진과 고문서 소장 각종 민속학적인 소재의 사진이 책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총서의 각 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실시하였고 구비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언어학자, 민속학자, 음악학자, 안무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각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충만한 해설을 하고 있다. 즉, 『구비문학 기념물』 총서는 말 그대로 구비문학만을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구비문학을 학제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서를 발간하면서 구비문학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보시비르스크의 ‘나우까’(Hayka) 출판부와 꾸준히 같이 일해 왔다. 각 책이 동일한 파란색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파란색은 시베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늘과 태양,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상징한다. 각 책의 표지에 난로 앞에서 두 명의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표지 삽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장대한 구비문학 작품집 출판 목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총서에서 제공되는 제보자와 조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현장 상황을 살린 녹취, 러시아어로의 번역 등은 구비문학 총서 편찬의 한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덱스를 통하여 본문을 보충 해설하고 있는 점도 효과적이다. 러시아어로만 번역되어 있는 점이 한계이지만 영어 초록이 각 책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시베리아는 한국에서 실제 거리보다 훨씬 멀다고 간주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시베리아 제 민족과 그들의 민속문화는 한국인과 한국 민속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시베리아 구비문학과 민속문화 그 자체에 대한 연구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민속문화와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속학자 모두에게 중요한 총서라고 판단한다.

